

한국금융학회 동계(I) 정책심포지엄 개회사 김홍범 (한국금융학회 회장)

요즘 금융이 매우 어렵습니다. 올해만 해도 정보유출사태, KB금융사태, KT ENS 및 모뉴엘 부당대출 사건 등, 대형 사고가 줄줄이 불거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런 와중에도 관치(官治), 특정 학맥이나 정치(政治)의 금융권 인사 개입이 나날이 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80등이라는 딱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내년엔 아예 100등 밖으로 밀려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기본이 바로 서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금융학자로서 저는 조심스레 ‘위기’를 떠올립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대로, 제가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비관적이어서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crisis)는 돌발성(unexpectedness), 불확실성(uncertainty), 중요한 목표에 대한 위협(threats),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need for change)이라는 4개의 두드러진 속성을 갖는다고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는 정의합니다. 이들 가운데 돌발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발성은 위기 자체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조짐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가 돌발적으로 불거진 것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자의 경우, 우리가 위기 조짐을 놓치는 데에는 심리적 이유나 사회적 이유가 작용합니다. 심리적 이유로는 위험이 현재화하기 이전에는 그 위험을 축소 또는 부정하려는 관성적 사고(inertial thought)의 성향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유로는 카산드라효과(Cassandra effect)를 들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24일자 *The Economist*는 금융의 미래에 관한 Special Report에서 한 월가 퀀트의 언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은 [꼬리리스크를 강조하는] 사려 깊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대신 이들의 자리를 [현상 유지에] 충실한 사람들로 채운다(The system ... filters out the thoughtful and replaces them with the faithful)”는 언급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건전한 비판적 경고를 하는 사람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다들 자기검열을 통해 무사안일의 집단사고에 빠져버리기 쉽다는 의미가 됩니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과 포드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재임 중 어떤 어려운 외교적 순간이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으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위기가 발생할 수 없어요. 내 일정이 이미 가득 차있거든요”라고 말입니다. 제 일정도 앞으로 10년 넘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위기가 한 10년 동안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현재 한국 금융의 위태로운 현실이 위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한국금융학회가 양치기소년이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무릅쓸 만하다고 오늘의 현실을 판단합니다. 이는, 한국 금융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소망하며 중장기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금융학회의 미래지향적 충정과 소명의식을 반영합니다.

지난 10월 본 학회 정책심포지엄은 모피아의 문제, 금융회사 수익성의 문제와 금융의 윤리 및 신뢰 문제에 관한 모두 세 편의 논문을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2개월 전 추계 정책심포지엄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올바른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주력했다면, 오늘 이 자리의 동계(I) 정책심포지엄은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탐구하는 데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선보이는 세 편의 논문은 학회가 위촉한 여러 분의 훌륭한 학자들이 지난 수개월간 독자적으로 진행하신 연구의 결과물로, 은행산업의 수익성, 비은행금융기관의 활성화와, 규제 및 금융기관의 행태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각각 천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심포지엄은 학회 부회장이신 위경우 숙명여대 교수께서 도맡아 기획·총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발표, 토론과 진행을 위해 학계는 물론 정책계, 업계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진웅섭 원장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운규 원장께서 환영사와 축사를 각각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또한, 본 학회의 역대 회장과 회원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금융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적극 후원해주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한국경제신문에도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자리가 금융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물음과 해법을 모색하며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